

차가운 돌에 깃든 부처님의 온기

전통방식 구현하며 40년 외길인생 걸은 석장 조각 남진세의 첫 개인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3월 13일까지 전시



돌은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일으킨 근원이다. 특히 석조문화는 조상들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감성과 예술혼, 미학적 가치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소박하면서도 완전한 조형물이다.

석장 조각 남진세는 최근 차갑고 딱딱한 돌에 부처님의 온기를 불어넣은 돌 조각전을 3월 13일까지 대구 성당동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선보인다. 점차 전통의 맥이 사라지면서 전통불교조각을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가운데 전시에서 선보여지는 25점의 석불조각은 마치 감로수와 같다.

전통조각이라 하더라도 돌조각은 사용되는 도구에 따라 작품의 전체적인 느낌과 질감이 다르게 나타난다. 남진세 조각가는 이번 전시에서

현 시대에 주로 사용하는 개량된 연장으로 완성한 조각, 개량된 연장으로 완성된 작품을 다시 전통 수작업과 정다듬으로 완성한 조각, 작품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통연장을 그대로 사용한 조각들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했다. 관람객들이 3가지 기법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직접 눈으로 비교하고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특히 '석가모니불' (사진)은 원석을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전통수작업으로 정다듬어 여느 작품과는 달리 부드러운 곡선의 느낌과 돌의 질감이 잘 살아 있다. '석련자' 역시 전통 기법을 그대로 재현해 남진세 조각가의 섬세하고 정교한 기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바위에 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 돌을 신의 현현으로 여겼다. 조상들의 이런 염원은 결국 석불조각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나라의 석조물 제작 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화강암에 불상을 조각하지 않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스스로 개발한 기술로 화강암에 불상을 새겼다.

그러나 점차 시대가 변하면서 돌을 제대로 다루고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특히 석불상 조각은 부처님의 자비심을 돌 속에 새기는 것이 염화시중의 미소를 헤아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남진세 조각가는 돌을 잘 다루는 몇 안 되는 조각가 중 하나다.

"석공예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건 그저 먹고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속 할수록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해 지더군요. 앞으로 제가 해 나가야 할 일도 결국 이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남진세 조각가를 보며 떠올린 말이다. 그가 석공예 길을 고집한지도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처음 외산촌 밑에서 돌가루를 마시며 조각을 배우던 소년은 현

대와 전통기법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장인이 됐다.

"첫 개인전이라 무척 두렵고 떨립니다. 특히 전통조각을 전시하는 자리라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돌조각으로 전시를 여는 데 있어 그가 이토록 마음을 졸이는 것은 그만큼 전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불상들이 중국, 인도에서 값싸게 들어오면서 한국 불모들의 설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되고, 장인의 혼이 들어간 작품은 그만큼 가치가 고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한국 불모들이 외면당해 갔죠. 제가 이번 전시를 통해 알리고 싶은 것은 비싼 불상이 좋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부처님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부처님을 모셔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전통방식으로 구현된 저의 작품들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은정 기자

이은정 기자의 뽀뽀(Fun Fun)한 레시피③

툷 주먹밥

나에게 특별한 친구가 한 명 있다. 그 친구를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반을 새로 배정 받고 낯설어 하던 나와는 달리, 그 친구는 소위 자신의 '라인'을 만들 정도로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렇게 새 학기에 어느 정도 적응해 갈 즈음,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자리 배치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나는 좋아하던 창가 쪽 자리를 벗어나 교탁이 보이는 정 중앙 자리에 앉게 됐다. 그때 그 친구는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 계기로 그 친구와 나는 서서히 친해져 갔다. 당시 여고생들이 그러했듯, 나도 '이제 너와 나는 절친이다'라는 의미에서 친구의 신상정보를 다이어리에 기록하기로 했다. 내가

"생일이 언제?"라고 물으니, 친구는 "12월 13일이야"라고 대답했다. 나는 재빨리 12월 달로 페이지를 넘겨 13일 날짜를 찾았다. 그런데 이미 그 날짜에는 '내 생일'이라고 큼직하게 적혀져 있는게 아닌가. 그랬다. 12월 13일은 내 생일이기도 했다.

그 후로 나는 지금까지 매년 내 생일에 "생일 축하해"라는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낸다. 자신의 생일날 누군가에게 생일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는 건 마치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고등학교 내내 자신은 나중에 탐험가가 될 거라 말했던 친구는 얼마 전 예쁜 공주님을 낳았다. 벌써 두 딸의 엄마가 됐다. 친구를 위해 나는 산모에게 좋다는 톷으로 주먹밥을 만들어 선물했다.



#알고가기 톷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비만인 사람들에게 좋다. 빈혈예방에 좋은 톷은 갈슘, 칼슘이 풍부해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특히 시금치의 3~4배에 해당하는 철분이 포함되어 있어 임신부에게 좋다. 톷은 깨끗이 씻은 후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 보관한다. 비빔밥이나 샐러드용으로 좋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당근 200g, 표고버섯 1개, 톷 150g, 쌀 1컵, 들기름, 참기름, 소금 약간

음식 만들기
① 쌀은 불린후 밥을 짓는다.
② 말린 톷은 따뜻한 물에 불린 후,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데쳐 낸다. 데쳐 낸 톷은 물기를 짜둔다.
③ 당근, 표고버섯, 톷을 잘게 썰어 달걀흰자 흰엔 들기름을 두르고 볶아낸다.
④ 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넣은 뒤, ③을 넣고 버무린 후 먹기 좋게 모양을 낸다.

이은정 기자

2천만 불자가 꼭 봐야할 뮤지컬!

볼기255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뮤지컬 원효 WONHYO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2011.4.22(토)~2011.4.23(일) 19시

www.musicalwonhyo.com

뮤지컬로 만나는 원효 대사와 요석 공주

BBS 등, 32억 제작비 투자... 불교계 첫 대형뮤지컬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고 MBC창사 50주년을 맞아 MBC와 BBS 불교방송이 뮤지컬 '원효'를 공동 제작했다. 이번 뮤지컬은 4월 22일~6월 12일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뮤지컬 '원효'는 가수이자 탤런트로 활동 중인 이지훈과 KBS2 '남자의 자격'에서 천상의 목소리를 선보인 선우가 주인공으로 발탁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연은 신라시대 최고 훈남 원효와 최고 미녀 요석 공주의 운명적 러브스토리이다. 경주 월정교에 전해 내려오는 사랑의 전설을 통해 14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뮤지컬 '원효'의 제작 담당을 맡고 있는 BBS 박원식 보도국장은 "사람들이 불교가 어렵다는 인식을 깨트리기 위해, 뮤지컬을 최대한 극적이고 재미있게 제작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드라마 '궁'의 OST를 담당했던 김연보 작곡가와, 최고의 뮤지컬 안무가인 이란영씨가 참여해 공연은 한 층 더 풍부해질 것"이라며 "이미 이문열 작가님에게 대한 감수를 받고, 30여 차례나 수정을 할 만큼 공연의 재미를 더하게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순수창작물로 총 32억원의 제작비가 투자되는 이번 뮤지컬은 불교계의 첫 상업 뮤지컬이라는 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효'에는 이지훈, 선우를 비롯해 이정용, 강태을, 김아선, 성기윤 외 28명의 배우진들이 출연하며, 연출은 뮤지컬 '선덕여왕'을 담당한 김승환이 맡았다. (02)705-5302 이은정 기자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들에게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m(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문의 : 010-8442-4444(상담) / 010-3534-8366(농장)
묘목 재배 농장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176번지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가미술

민속죽염 22년 전통

최상의 알과 은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 루 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죽염 230g 55,000원

2번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지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텔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약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